

사 설

토플 고득점자가 가지는 의미

우리학교가 97년도 교육개혁 평가에서 종합순위 1위의 최우수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은 여러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상위에 오른 것도 주요 원인지만 가장 큰 원인은 평가 항목 중 제일 비중이 높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학생선발에서 그 어느 대학보다 우위를 차지한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최우수 평가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지난 13일 서울 캠퍼스 98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제화 추진 전형에 토익 토플 성적 우수자들이 대거 지원해 36명을 선발하는 모집에 1백 44명이 원서접수를 마쳐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응시생 중 최고득점자는 토플 6백 70점 토익 9백 75점이었고 전체 평균은 대체로 토플 약 600점 토익 900점대를 상회하리라 한다. 국제화 추진 전형제도가 초기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고 이 전형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생생활 평가 여부에 따라서 이 제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반 국제화 추진 전형 응시생의 면모에서 우리는 두가지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첫째, 고등학생으로서 이러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놀라움과 둘째, 이미 많은 고등학생들이 토익이나 토플 시험을 응시하고 있다는 데 대한 놀라움이다. 물론 응시자들의 일부가 영미권에서 수학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손치더라도 응시생들의 평균 성적은 영미권의 어느 우수한 대학에서도 수할 수 있는 입학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성적은 현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CRS 졸업인증제에서도 일정한 토익 토플 성적을 얻으면 영어시험을 면제해 주는 기준보다도 훨씬 상회한다.

영어교육은 어느 학문 영역이건 간에 가장 필수적인 기초교육, 도구교육이 되고 있다. 기업체 취직시험에도 영어는 핵심적인 평가 잣대이며 직장인들의 승진에도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고 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50%가 토익이나 토플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 이제 영어공부는 일회용 공부기가 아니라 인생을 윤택하게 살아가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현상이 우리가 처한 작금의 현실이며 우리 민족문화를 세계화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때마침 98년도부터 영어학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므로 학교 당국도 영어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충격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 재학생들도 자기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분발해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경희만평

김진우



"두꺼비! 뭐하자는건데?"

시론

전자주민카드 시행안 통과, 문제점은 없는가

행정편의가 개인통제 우려보다 위에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행정편의는 좋아진다 하여도
돌이킬 수 없는 경찰국가가 될 수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두고 수많은 찬반논란이 있어왔던 전자주민카드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내무위 전체회의에서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표결처리로 통과되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될 전자주민카드는 기존에 실시되었던 도로교통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대한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제외되었고, 일반 주민등록카드와 초본에 수록된 정보 등만 담게된다. 95년 처음으로 전자주민카드사업안을 발표했을때와 다르게 그 정보의 양을 대폭 줄인 것은 개인정보가 한 곳에 집중될 경우 권력에 의한 개인통제에 우려된다'는 시민, 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입장표명에 의해서였다.

사업추진의 폐쇄성

전자주민카드의 등장은 기존의 주민등록증이 '본인식별'이 어렵고 위조, 변조가 쉬우며 기능이 단순하다'는 단점이 한참 지적될때였다. 이러한 주민등록증의 문제점을 보완해 사회법제화를 막을 수 있고 민원사안을 일괄처리할 수 있게끔 각종 개인정보를 통합한 새로운 신분증이 그 대안이란 것이다.

또한 이 새로운 신분증 제작은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감

축에 따른 공무원의 인원절감과 제증명 발급에 드는 행정비용 감소 △ 국민들이 읍, 면,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불편함 최소화 △병역, 의료보험, 운전면허 서류업무의 용이성 등을 가능하게한다.

이런 순기능에 따라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며 차근차근 도입절차를 밟아왔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전자주민카드 공방전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를 야기했던 부분은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폐쇄성이다.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법률도 마련되지도 전에 6백 60억원의 예산이 카드제조설비 구입 등에 지출되어 제도시행을 마치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나탈남 부작용에 대해선 일체 언급이 없이 장점만을 부각시켜 일방적으로 따르게만 했다. 당시 언론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일조해 '전자주민카드' 네가지 기능 한 장에 통합 같은 제목으로 홍보에만 치중할 뿐 문제점 지적에 있어선 궁색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문제점을 두고 지난 7월 14일에는 국회 내무위에서 공청회가

열려 밀실행정이란 이름을 떨쳐버렸고, 시민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지난 13일에는 전자주민카드에 담은 개인신상정보를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정보유출의 위험성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언제라도 전자주민카드의 정보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를 위해 책정한 예산은 2천 7백 35억원이다. 하지만 대폭 기능이 축소된 전자주민카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비용은 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의 전산발행으로 얻을 수 있는 1천억원과 5천여명의 인원감축이 전부이다.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한 투자가 아닌 듯 싶다. 기본적으로 행정정보만을 수록하는 주민카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려는 내무부의 방침에는 앞으로 모든 개인정보를 이 카드에 통합하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는 것인가. 더욱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것은 주민카드의 구상이 지난 89년 안기부와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다. 전자주민카드에 지문을 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 안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시비를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안기부와 경찰청의 강력한 요청으로 결국은 수록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는 후문이 있다.

기본적 정보만 담은 주민카드를 사용한다 해도 정보유출의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오히려 개인신상정보를 잘 정리해놓은 전자주민카드가 정보유출을 더욱 용이하게 할 소지가 있다. 지난 94년에는 공무원들이 상품광고지 발송대행사로 부터 뇌물을 받고 서울시 국제회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일반시민의 신상기록 2백 92만건을 빼돌렸다 적발된 적이 있었다. 이미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판치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또한 주민의 신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예정인데, 통신을 통한 해킹침입도 충분한 위험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안기부가 암호체계를 독점관리해 보안을 유지한다는 대안을 내고 있다. 그러나 96년 4월 국내해커가 청와

대, 안기부, 정보통신부 등 국가기관 인터넷 전산시스템에 침입해 고위직 인사들의 비밀번호를 빼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말해주듯 통신공간에서의 절대안전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호장치 마련 필요

비용절감, 국민편의의 증진을 위한 주민카드의 순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보안이 문제된다하여 그런 것들을 버릴 순 없다. 완벽한 보안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에 문제점이 있을때는 기술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위협당한다면 법률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수집대상자가 되는 개인의 보호조항은 상당히 제한되어 의미가 없기에 이 부분에 있어 조속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겠다.

지난 86년 '오스트레일리아 카드'라고 불리는 전국민 신분증제도 도입을 시도했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 다음해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60년대 미국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개인정보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주민카드제를 시도한다면 '90년대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오명이 세계사에 남을 것이다.

(김동욱 기자)

PC 삐걱대는 경제를

통신원

남의 돈으로 살리기

"Help, Me!!"

결국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대기업들의 부도, 사상최대의 추가파락 등으로 위태위태하게 버랑 끝을 걷던 한국경제가 결국은 백기를 든 것이다.

정부는 IMF에 원조를 받게 된 것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하나 이는 한국경제의 치욕이고 우리 스스로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PC통신에선 이에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우선 IMF의 원조를 받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경제를 다지고 계획해서 서서히 국제사회에 발돋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ID:kissclub) 또한 빚을 갚기 위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을 걱정하는 소리도 있었다. (ID:amraam07)

반면, 앞을 내다보면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주장도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구조는 썩을대로 썩었고, 기업들은 빚더미만 굴리고 있으니, 이를 확실히 뜯어고칠 방법은 IMF 구제요청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ID:stnicola)

한편, 나라경제가 와해되는 마당에 선거유세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에 대해 '빚내서 잔치하는 꼴'이라며 그러한 처사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ID:8813, dalangke)

한나라 경제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소중한 경제권을 정부에게 제대로 관리하도록 위임했다. 그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채 경제를 소홀히 하고 정권교체에만 연연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부도 사태'에 대해 정부는 깊이 반성하고, 이제는 국민의 고통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정수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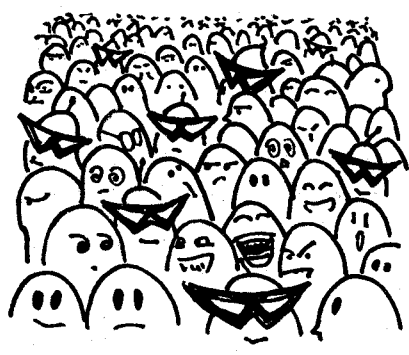
세·시·봉

간첩사건 악용금지!

추가파락속의 경제불황, 정치권의 세력싸움 등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속에 더욱 우리를 충격의 늪에 빠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월 2일 거제도도를 통해 침투, 2개월간 전국을 무대로 활동해온 최정남, 강연정 부부간첩단 사건이 그것이다. 이들 부부간첩은 남파된 뒤 우선 교영복(서울대 사회학)교수, 서울지하철 공사 동차설비분소장 심정용 씨 일가 등 고위간첩들의 활동을 점검한 뒤 북한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공작원 포섭작업에 착수했다고 안기부는 전하고 있다.

교영복 교수처럼 사회학의 태두로 학계를 이끌어온 학자가 36년간 고위간첩으로 일해온 것은 우리 사회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여러차례에 걸쳐 남파공작원들과 접촉하고, 부부간첩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었으며 국내 정세등을 보고했다고 한다.고 교수 이외에 서울지하철공사 분소장 심정용씨도 중학교때 월북, 간첩교육을 받고 남파하여 39년간 철도, 지하철에 근무해 지하철 철도국가 기간산업에 관한 정보를 북에 보고해왔다. 또한 이들 부부의 진술에 의하면 지난 2월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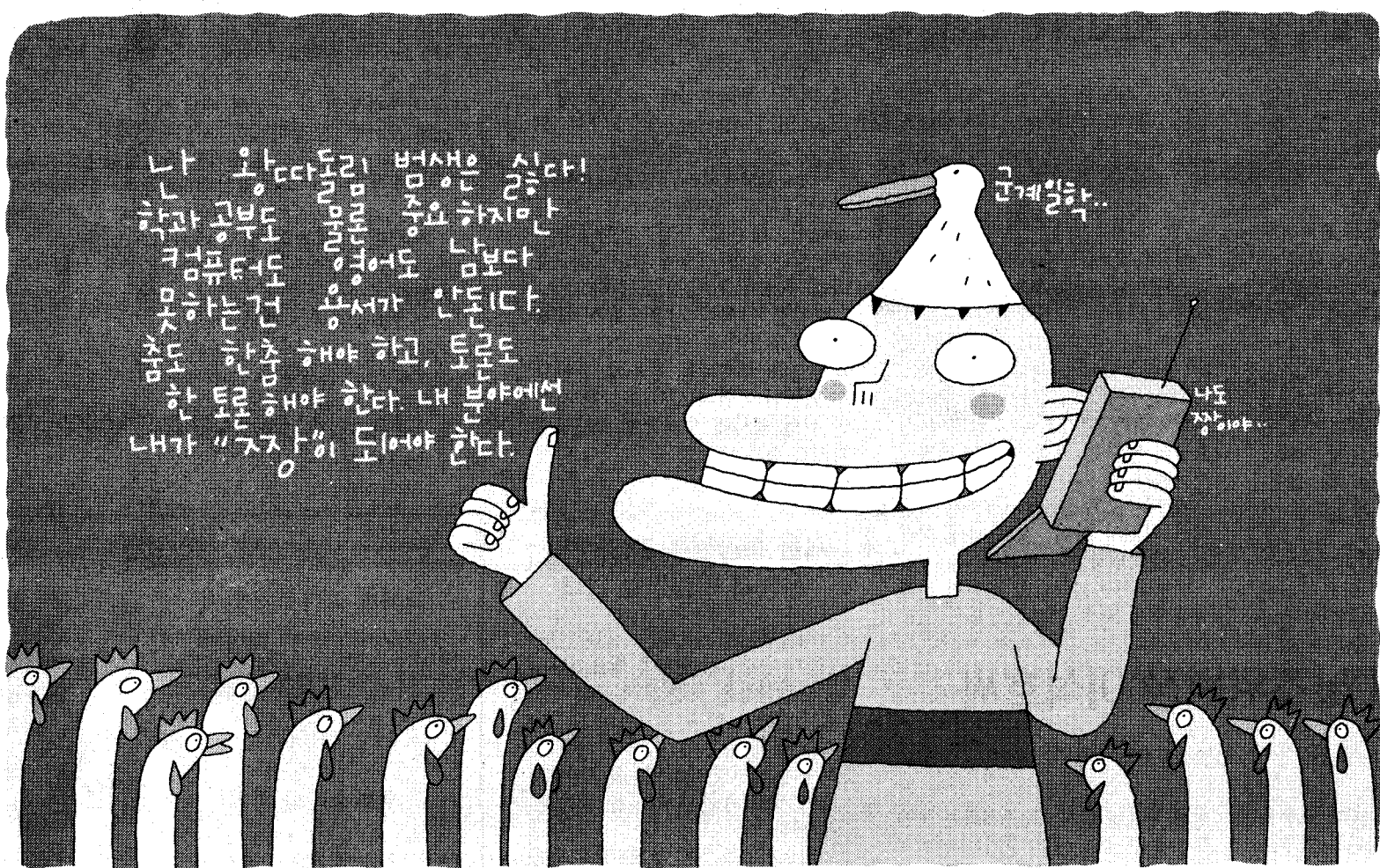
김동혁 문화부기자

순자 이한영씨의 피살과 78년 8월 서해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3명 실종사건도 모두 북한측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이번 간첩단사건이 대선 20여일을 앞두고 대두된것에 대해 '조작'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있다. 과거 여러 선거를 앞두고 그랬듯이 때문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안기부측에선 '선거때가 사회혼란을 조장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북측의 공작원칙 때문이라 답변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거를 앞두고 많은 간첩사건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안기부는 그런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해 특정정당에 이득이 되는 '선거전 간첩사건'을 미리막지 못했다.

안기부 간첩단 사건 발표에 대해 각 정당은 대선 정국에 미칠 여파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순위가 어지럽게 변화되고, 지역감정 싸움이 정치판에 불고 있는 지금 이 사건을 교묘히 이용하여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과거 미묘한 사건을 대선정국으로 악용한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각 정당들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할 것이다.

NEW BEST
새로운 기술, 최상의 서비스



“짜” 이동전화의 PCS 016

한 분야의 짝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이동전화에도 “짜”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이 땅을 빈틈없이 연결한 한국통신의 노하우와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PCS 016-

망설계, 망구축, 망운영에 이르기까지, 통신전문가만이 드리는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통신프리텔이 만든 PCS 016-
통신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소리가 보인다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

0-는 그...에나 “짜”이...있...이
통신에도 “짜”이...있다. 공학의이6생각.